



## 65년 건설 역사의 자부심과 긍지로

### 대림산업(주)

**한** 국 기업 흥망사를 보면, 해방 이후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면서 그 부침을 겪어 왔다. 때문에 해방 이후 한국의 100대 기업 중 남아있는 기업들은 손가락으로 꼽힐 정도인데,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대림산업(大林産業)이다.

1939년 암울하기만 했던 일제 강점기에 허허벌판에서 시작된 대림산업은 현존하는 국내 건설사 중 최고인 65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대림은 그 최고의 역사 만큼이나 늘 선두에 서서 우리 나라 건설 산업을 대표해 왔다.

1966년 국내 기업 최초로 베트남에 진출 1970년대 해외 건설의 황금기를 이끌었으며, 1981년에는 건설사 최초로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였다.

기업의 평균 수명이 30년이 채 안되는 우리 나라의 기업 환경 속에서, 특히 부침이 심했던 건설 산업을 외길로 이어온 전통은 대림인의

가슴에 자부심과 긍지로 자리 잡고 있다. 바로 이 긍지와 자부심은 언제나 어려울 때 대림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저력이 되고있다.

###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자부심

대림산업은 1939년 10월 10일 창사 후 전후 복구를 위한 건설에 앞장섬으로써 종합 건설 회사로서의 기반을 착실히 다졌다. 1966년에는 건설 도급액 랭킹 1위 달성과 경부고속도로, 여수와 울산의 석유 화학 및 비료 공장, 발전소, 항만 건설 등 한국 경제 발전사의 획을 긋는 중요한 공사들을 해냈다. 1970년대에는 중동의 여러 나라와 동남 아시아, 그리고 미국 등지에서 대규모 건설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대형 발전소, 중화학 플랜트 등 각종 기술 집약형 프로젝트의 건설 경험은 오늘날 대림이 설계에서부터 구

매·시공·사후 관리까지 일괄 수행하는 턴키 베이스 능력을 갖춘 세계 유수의 건설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자랑하게 된 기틀이 되었다.

1989년 창업 50주년을 맞이한 대림은 제2의 창업을 선언하고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창출하며, 광대 무한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한 숲정신'을 대림의 기업 이념으로 정하였다.

또한 21세기를 향한 비전과 전략인 '대림 21세기'를 선포하고 21세기에 EC화된 세계적인 건설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각적인 변신을 거듭해 왔으며, 1999년 창립 60주년을 맞아 우리 나라 엔지니어링 업체를 선도해 온 대림 엔지니어링을 합병, 명실공히 최강의 E&C (Engineering & Construction) 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지난 60여 년간 도로·교량·항만·발전소 등 SOC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한국의 산업 기반 구축에 앞장섰으며, 국회의사

당·세종문화회관·독립기념관·올림픽주경기장 등 한국의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시공해 왔고, 국내 주거 문화의 개념을 바꿀 46층의 최첨단 초고층아파트 아크로빌과 세계 최장대교 중 하나로 손꼽히는 서해대교를 건설하였으며,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영광 원자력 5·6호기 공사에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완공함으로써 원전 시공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대림산업은 이같이 어제와 오늘의 성공에 자만하지 않고 창조적 정신으로 끊임없이 노력하여 21세기 세계적 건설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e-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한 정보화/지식 경영

기업은 그 시대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변모해 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지식 경영’이라는 새로운 장을 도입하여 도약의 21세기를 차분히 준비해 온 대림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펼치는 경영 전략은 e-Business를 기반으로 한 ‘정보 경영’과 사업의 경쟁력을 집약적으로 강화하는 ‘지식 경영’이다.

새로운 정보화 시대에 건설업 또한 e-Business를 접목하여 정보화를 이루어야 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설업계 최초로 기업의 실적과 기업의 자원 흐름을 시스템화하는 <MIS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여 완성하였으며, 아울러 인터넷상에서 On-Line으로 건설 자재를 입찰·계약·구매할 수 있는 건설 자재 전자상거래 시스템인 ‘대림 e-Bid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대림산업은 디지털 신경제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창조적 정신으로 끊임없이 노력, 21세기 세계적 건설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1998년 3월부터 ‘지식 경영 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다.

현재 본사, 국내외 현장 및 지점을 연결하는 사내 전산망인 「코스」를 통해 개인과 조직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체계화하여 현업에 활용하고 있다.

### 새해 원자력 사업과 계획

지난 2003년 2월 22일 영광 원자력 5·6호기 준공 기념 행사를 가졌다. 1995년 8월 영광 원자력 5·6호기를 수주, 신규 업체로 참여하여 2002년 5월 21일 5호기, 2002년 12월 23일 6호기 상업 운전을 거쳐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기술 축적은 물론 원전 건설 참여자로서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2003년에는 21세기 최초로 발주된 신고리 1·2호기의 입찰에 참여하여 2003년 6월 13일 주설비 공사 계약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원자력 시공 업체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점하였으며, 새해부터 e-z Doc portal(Project 전체 Life Cycle에 걸쳐 생성되는 모든 문서의 저장 및 공유, 활용과 협업을 통한 사업 관리 방침)을 구축, 운용함으로써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원전 건설 참여 인력의 시공 능력 향상을 위해 사내외의 원자력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공준비팀을 구성하여 사전에 현장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는 등 신고리 1·2호기 시공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공동 도급사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통하여 원활한 공사 수행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추후 발주가 예상되는 차세대 원전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요 국책 사업 중 하나인 원전 수거물 관리 시설에도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기술력 및 시공 능력을 격상하여 향후 원자력 업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원자력 시공 업체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다져 나갈 것이다.



영광 5·6호기. 대림산업(주)는 2003년에는 21세기 최초로 발주된 신고리 1·2호기의 입찰에 참여하여 2003년 6월 13일 주설비 공사 계약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원자력 시공 업체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점하였으며, 새해부터 e-z Doc portal(Project 전체 Life Cycle에 걸쳐 생성되는 모든 문서의 저장 및 공유, 활용과 협업을 통한 사업 관리 방침)을 구축, 운용함으로써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맺음말**

IT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지금, 지식으로 무장한 개인과 조직만이 지식 기반 경제하의 주역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확신과 신념으로 전 임직원은 완성도 높은 지식 경영을 위해 학습 조직을 비롯한 지식 재창조 시스템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흠어져 있는 전 현장 및 각 부서 경영 관련 자료의 입력과 동시에 주요 경영 지표에 대한 실적과 예측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경영 정보 시스템(MIS)을 구축하여 업무 효율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65년 전통으로 축적된 우수한 기술을 온-라인에 접목시킴으로써 디지털

시대의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고 있다.

대림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명실상부한 21세기 세계적 건설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창조와 도전 정신을 불태우고 있으며 전통과 저력을 바탕으로 천년 기업의 꿈을 향해 크게 준비해 나갈 것이다. 